

전남도, 세계적 에너지 이슈 선제 대응 분주

관련 부서·기관 등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기업유치 회의 정례화

전남도가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 체계 마련과 기업유치 전략을 세운다.

전남도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등 세계적 에너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등 전문가집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기업유치 전략회의 등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최근 에너지·전력산업·일자리·기업도시 등 경제 관련 부서와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에너지 전문연구기관과 전략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유럽연합탄소국경세, 탄소국경세 등 국내외 에너지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 전남의 산업 여건 분석을 통해 국고 건의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 기업 입장에서 전남지역 투자 당위성 등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체계적인 예산확보 활동, 기업투자유치 활동

등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또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산업 등 에너지산업 육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및 글로벌 데이터센터 조성 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해 연관 지자체·혁신기관과 협업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공동 협력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매월 각 부서 팀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 분기별 국·과장으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필요한 전략을 단기·중장기

목표로 세분화하고, 부서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세부 액션플랜을 마련해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유럽연합탄소국경세 등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전남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정책적 설득 논리를 마련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시장군수, 쌀값 폭락 방지 머리 맞댄다

30일 영암서 민선 8기 첫 시장군수협의회 ... 결의문 정부 전달 논의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우려하는 전남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시장·군수 22명은 오는 30일 영암에서 민선 8기 첫 시장·군수협의회를 열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쌀값 수확기를 앞두고도 쌀 재고량이 40만 t이 넘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는 위기감이 농민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쌀값은 지난 8월 15일 20kg 기준 4만 2522 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전년도 같은 기간 5만 5630 원에 비해 폭락, 이대로라면 지역농협들이 올해 쌀 수매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영암군 설명이다. 영암군이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 공식 안전으로 상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농협의 경우 지난해 평균 6만 4000원(40kg 조곡) 수준으로 쌀을 사들였지만 현재 쌀값을 고려하면 30%가 넘게 하락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37만 t을 격리했지만 여전히 쌀 재고량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농협이 적자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쌀 수매에 나설 수 없겠느냐는 우려가 농민들 사이에서 확산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쌀값을 수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지역 농협들이 재고 쌀을 저가에 내놓는 '밀어내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전남 시장·군수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 민선 8기 첫 협의회를 통해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쌀값 폭락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쌀생산 농가의 위기감을 반영, 4차 쌀 시장격리를 시행할 것과 농산물 소득안정정책의 법제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 지속적인 쌀값 안정화 방안 요구와 무려 20차례에 걸쳐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의 '상소문'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쌀값 대책 요구에도, 정부가 4차 시장 격리 방침을 밝히지 않으면서 지역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민선 8기 첫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쌀값 폭락 대책 외에도 ▲동부권 닥터 헬기 배치 ▲세계 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상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린 앤 애그리테크 아시아 개막

Green & Agritech Asia 2022(그린 앤 애그리테크 아시아 2022)가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참가업체가 소개하는 벽면녹화용 기능성 화분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남도달밤야시장' 시즌2 운영

27일·내달 3일 대인시장서

광주시는 가을을 맞아 '남도달밤야시장' 시즌 2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인시장의 '남도달밤야시장' 시즌2는 오는 27일과 내달 3일 총 2회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더욱 풍성한 먹거리 판매와 스마트 문화예술 체험, 음악공연, 미술작품 전시 및 판매, 남도달밤야시장 캐릭터 굿즈 샵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도자기 만들기 물레 체험, 핸드페인팅 체험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증강현실(AR) 메타버스 관광 체험

도 할 수 있다.

음악 공연으로는 다국적뮤지션밴드 '드리머스 콘서트', 청년 버스킹, 디제이 등이 펼쳐진다.

상설전시 공간인 한평갤러리에서는 펜드로잉 분야에서 주목받는 오건호 작가(대표작 '북한산 선운각')와 전통 도예 전문가 고희나 작가 등의 작품이 전시·판매된다.

'별별상상정원'에는 바비큐 트레일러와 인기 푸드트럭 셀러 등이 참여해 크리 생맥주와 소금 아이스크림이 특징인 먹거리 장터를 연다.

이번 '남도달밤야시장' 시즌2에서는 '나이트 호러 야시장'의 콘셉트에 맞춰 총 9종의 캐릭터가 새로 개발돼 첫선을 보여 주목된다. 또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별도 굿즈 샵도 운영한다.

남도달밤야시장 시즌2 이후 시즌3·4는 내달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되며, 테마형 야시장으로 추석, 다문화, 헬러윈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한평갤러리에서는 지난 8월 선보인 레지던시 참여작가들의 주제별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수도권 수해 이재민 돕기 전남 수산물 직거래장터

26일부터 경기 오산역 광장 활전복·다시마 등 40여 품목

서울 등 수도권 후유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전남도 수산물 판매 직거래장터'가 오는 26일부터 4일간 경기도 오산역 광장에 마련된다.

전남도어촌계연합회와 전국재해구호기금이 공동으로 참여, 활전복·자숙전복·전복장 등 전복과, 갈치·병어·참돔·멸치 등 건조생선,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오징어젓·갈치속젓 등 젓갈류, 소금 등 전남도어촌계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청정 수산물과 수산물공품 40여 품목이 판매된다.

판매 수익금은 전남도어촌계연합회가 호우 피해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난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기부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하고 호우 피해 지역민에게 도움도 주는 것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지공예 체험하세요

전남도농업박물관 9월 3일

'전통의 향기가 묻어나는 한지공예 체험하세요.'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멋이 담긴 한지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오는 9월 3일 무료 '한지공예교실'을 연다. 올해는 행사 때마다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참가 인원을 확대하고 운영 횟수를 2회로 늘렸다.

이번에는 '손겨울' 만들기 체험을 할 계획으로, 오전 10시와 11시에 50명씩 선착순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무료로 한지공예를 쉽게 배우고, 자신만의 소품을 만들어 간직할 수 있다.

한지는 부드럽고 질겨 천년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강하다. 예로부터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장호지는 물론 부채, 반전고리, 필통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으로 활용됐다.

최근에는 현대생활에 맞게 거품나 전등같이 나 닥종이 인형, 차받침, 합 등 다양한 전통공예품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희망자는 9월 2일까지 박물관 누리집(www.jam.go.kr) 등으로 하면 된다.

임영호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무더위가 수그러드는 9월을 맞아 박물관이 마련한 한지공예교실, 한가위 민속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 잊히는 우리 전통문화를 알고 이어가는 다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